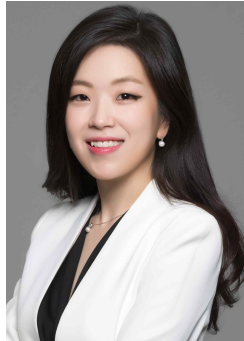


#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 2019 서울시 9급 국어(A책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우월한 문법규정,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문물 올인원,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실전300제, 박문각  
이유진 화제의 모의고사 시리즈, 박문각  
메가스터디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일관성,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 정답: ② [이론 문법 - 통사론 - 문장 성분]

★ 정답 해설:

제시된 문장은 '몸은 아프다'와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라는 두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마음만은'은 '날아갈 것 같다'의 주어이다. 따라서 밑줄 친 '마음만은'은 강조의 보조사 '만'과 결합한 보조사 '은'이 주격 조사 대신 쓰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선지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참고) 문장 성분의 종류(우월한 문법·규정 p. 266-269)

참고) 문장의 짜임새(우월한 문법·규정 p. 270-274)

★ 오답 해설:

- ① 제시된 문장은 '그는 밥도 안 먹다.'와 '그는 일만 한다.'라는 두 문장이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때 앞 절의 서술어는 '먹다'이며 밑줄 친 '밥도'는 앞 절의 목적어로 쓰였다.
- ③ 제시된 문장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인 '주다'가 쓰였다. 서술어 '주다'에 대하여 '그는'은 주어, '그녀에게'는 필수 부사어, 밑줄 친 '물만'은 목적어로 쓰였다.
- ④ 제시된 문장은 관형절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이 '이유'를 꾸미고 있는 안은안건 문장이다. '고향의 사투리까지'는 안건문장의 서술어인 '싫어하다'의 목적어로 쓰였다.

문 2.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 ① 새까맣다 - 시퍼렇다 - 셋노랗다
- ② 시뻘정다 - 시허엿다 - 시누렇다
- ③ 새퍼렇다 - 새빨강다 - 셋노랗다
- ④ 시하얗다 - 시꺼멓다 - 시누렇다

★ 정답: ② [한글 맞춤법 - 형태에 관한 것]

★ 정답 해설:

참고) 문장의 짜임새(우월한 문법·규정 p. 160)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접두사 '새-/시-, 셋-/잇-' 구별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는 '새-/시-'를 붙이되, 어간 첫음절이 양성 계열 모음일 때는 '새-', 음성 계열 모음일 때는 '시-'로 적는다.

예) 새까맣다, 시꺼멓다, 새빨강다, 시뻘정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새하얗다, 시허엿다

· 울림소리 앞에는 '셋-/잇-'으로 적음. 따라서 '새노랗다, 시누렇다'는 틀린 표기

예) 셋노랗다, 잇누렇다

★ 오답 해설:

- ① 울림소리 앞에는 '셋-/잇-'으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퍼렇다(X) → 시누렇다
- ③ 어간 첫음절이 음성 계열 모음일 때는 '시-'로 적는다. 그러므로 새퍼렇다(X) → 시퍼렇다
- ④ 어간 첫음절이 양성 계열 모음일 때는 '새-'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하얗다(X) → 새하얗다

문 3.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보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종략 -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① 편견(偏見)
- ② 불화(不和)
- ③ 오해(誤解)
- ④ 독선(獨善)



문 7. <보기>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다라골      ㉡ 국망봉      ㉢ 낭림산      ㉣ 한라산

① ㉠ - Dalakgol

③ ㉢ - Nangrimsan

② ㉡ - Gukmangbong

④ ㉣ - Hallasan

★ 정답: ④ [어문규정 - 로마자 표기법]

★ 정답 해설:

㉡ 자음동화(유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므로, ‘한’을 소리 나는 대로 ‘할’로 표기한다. ‘ㄹ’은 ‘ll’로 표기한다.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한라산[할라산]’은 ‘Hallasan’이 옳다.

참고) 로마자 표기법 (우월한 문법·규정 p. 391~)

표기 일람>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      |    |   |      |    |   |      |    |   |
|------|----|---|------|----|---|------|----|---|
| ㄱ    | ㄲ  | ㅋ | ㄷ    | ㄸ  | ㅌ | ㄴ    | ㄹ  | ㅍ |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

2. 파찰음

|   |    |    |
|---|----|----|
| ㅈ | ㅉ  | ㅊ  |
| j | jj | ch |

3. 마찰음

|   |    |   |
|---|----|---|
| ㅅ | ㅆ  | ㅎ |
| s | ss | h |

4. 비음

|   |   |    |
|---|---|----|
| ㄴ | ㄹ | ㅇ  |
| n | m | ng |

5. 유음

|      |
|------|
| ㄹ    |
| r, l |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                    |
|-----------------|--------------------|
| 백마[백마] Baengma  | 신문로[신문노] Simmunno  |
| 종로[종노] Jongno   | 왕십리[왕십니] Wangsimni |
| 별내[별래] Byeollae | 신라[실라] Silla       |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참고) 계곡이나 폭포, 동굴 따위의 로마자 표기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2000)에 ‘산, 강, 섬, 산맥, 고개’ 등의 표제어는 로마자 표기만, ‘계곡, 호수, 저수지, 폭포, 동굴’ 등은 로마자로만 적은 것과 일부분을 영어로 번역한 것, 두 부류가 나타난다. ‘한라산’, ‘금강’ 등 한글 표기에서 붙여 쓰는 표제어는 하나의 고유 명사로 보아 전체를 로마자로 옮기고, 한글 표기에서 띄어 쓰는 표제어는 보통 명사 부분에 대해 실용상의 편의를 위해 널리 통용되는 영어 번역어를 표기했다. 대응하는 마땅한 영어 번역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 표기의 보통 명사 부분을 ( ) 안에 넣고, 고유 명사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예) 한라산 Hallasan 금강 Geumgang 달성 공원 Dalseong park 안양(유원지) Anyang

★ 오답 해설:

- ① ㉠ 다라골[다라골]: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또한 된소리되기로 인해 바뀐 발음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라골]로 소리 나더라도 ‘Darakgol’로 적는다.
- ② ㉡ 국망봉[국망봉]: 자음동화(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므로, ‘국’을 소리 나는 대로 ‘궁’으로 표기하여 ‘Gungmangbong’으로 적는다.
- ③ ㉢ 낭림산[낭림산]: 자음동화(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므로, ‘림’을 소리 나는 대로 ‘님’으로 표기하여 ‘Nangnimsan’으로 적는다.

문 8. <보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冬至人들 지나긴 밤을 한 ( ㉠ )를 버혀 내어  
( ㉡ )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켜리라.

- |   | ㉠  | ㉡  |
|---|----|----|
| ① | 허리 | 春風 |
| ② | 허리 | 秋風 |
| ③ | 머리 | 春風 |
| ④ | 머리 | 秋風 |

★ 정답: ① [독해(문학) - 고전 문학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제시된 시조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움과 임을 향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冬至人들 밤’은 1년 중 가장 긴 밤이다. 가장 긴 밤을 임을 그리며 외로이 지내는 화자는 그 긴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 두었다가(초장) 봄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그 시간을 넣어 두어(중장) 임과 함께 보내는 밤에 그 시간을 꺼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 한다(종장). 따라서 ㉠에는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허리’가 적절하다. ㉡에는 따뜻함을 뜻하는 ‘春風(춘풍)’이 적절하다.

★ 작품 해설: 황진이, <동짓달 지나긴 밤을> (우월한 독해 p. 182 적중)

- 해제: 이 작품은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형상화한 우리나라의 시조로, 참신한 비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 갈래: 평시조, 단시조, 서정시
- 성격: 연정가, 감상적, 낭만적, 연가(戀歌)
- 주제: 임을 향한 애다는 그리움
- 표현: 은유법(시간을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 의태법
- 율격: 3·3(4·4)조, 4음보
- 특징: ① 비유와 의태적 심상으로 형상화함.  
②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함.  
③ 우리말의 우수성을 잘 살려냄.

문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 꺼져 간다.
-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 정답: ③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답 해설:

‘떠내려가다’는 ‘물 위에 떠서 물결을 따라 옮겨 가다’라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 ‘버리다’는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므로 ‘떠내려가 버리다’는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성이다.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보조 용언과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떠내려가 버렸다’의 경우 ‘떠내려가 버렸다’로 띄어 써야 한다.

‘강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오답 해설:

①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르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이거나,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시다)'의 구성인 경우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꺼져 간다'에서 '가다'는 주로 동사 뒤에서 '-어 가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꺼져 간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 '꺼져간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② '그 사람'에서 '그'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명사 '사람'과 띄어 쓴다. '적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은 적하다', '-는 적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것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므로 '아는 적하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라 '아는 적하다'로 쓰는 것이 원칙, '아는적하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④ '듯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그러나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7항 다만 규정에 따라 '울 듯도 하다'는 의존 명사 '듯' 뒤에 보조사 '도'가 붙었으므로 '울 듯도 하다'처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47항(우월한 문법·규정 p. 174)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ㄱ         | ㄴ        |
|-----------|----------|
| 불이 꺼져 간다. | 불이 꺼져간다. |
|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듯하다. |
| 울 듯하다.    | 울듯하다.    |
| 잘 아는 척한다. | 잘 아는척한다. |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                    |
|-------------------------|--------------------|
| 잘도 놀아만 <b>나는구나!</b>     | 잘난 체를 <b>한다.</b>   |
| 책을 읽어도 <b>보고.....</b>   | 아는 체를 <b>한다.</b>   |
| 내가 덤벼들어 <b>보아라.</b>     | 비가 올 <b>듯도 하다.</b> |
|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b>듯하다.</b> | 값을 물어만 <b>보고</b>   |
| 그가 올 <b>듯도 하다.</b>      | 믿을 만은 <b>하다.</b>   |

문 10. 맞춤법 사용이 옳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웃어른, 사흘날, 베갯잇
- ② 널리리, 남존녀비, 헤택
-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 ④ 홀몸, 밋밋하다, 선율

★ 정답: ②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규정]

★ 정답 해설:

· 널리리: 한글 맞춤법 9항에 따라,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따라서 '널리리'가 아닌, '널리리'로 쓰는 것이 맞다.

· 남존여비: 한글 맞춤법 제10항에 따라,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남존+여비의 경우인 '남존여비'는, '남존녀비'가 아닌 '남존여비'로 쓰는 것이 맞다.

· 헤택: 한글 맞춤법 제8항에 따라, 게, 레, 메, 페, 헤의 'ㄱ'은 'ㄱ'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 따라서 '헤택'이 아닌, '헤택'으로 쓰는 것이 맞다.

★ 오답 해설:

① · 웃어른: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2항에 따라,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윗어른'이 아닌 '웃어른'으로 쓰는 것이 맞다.

· 사흘날: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따라,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다만,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흘날'이 아닌 '사흘날'로 쓰는 것이 맞다.

· 베갯잇: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베갯과 잇은 모두 순우리말로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베갯잇'으로 적는 것이 맞다.

③ · 적잖은: 한글 맞춤법 제39항에 따라,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다만, '-지 않-', '-치 않-'이 한 개 음절로 줄어지는 경우는 모두 '잖, 찹'으로 적도록 하였다. 따라서, '적잖은'으로 쓰는 것이 맞다.

· 생각건대: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라,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다만,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따라서 '생각하건대'를 '생각건대'가 아닌, '생각건대'로 준 대로 적는 것이 맞다.

· 하마터면: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라,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     |     |      |      |      |      |
|-----|-----|------|------|------|------|
| 결단코 | 결코  | 기필코  | 무심코  | 아무튼  | 요컨대  |
| 정녕코 | 필연코 | 하마터면 | 하연튼  | 한사코  | 평생토록 |
| 이토록 | 그토록 | 저토록  | 열흘토록 | 종일토록 |      |

따라서 위의 표에 해당하는 부사인 '하마터면'은 '하마터면'으로 적는 것이 맞다.

④ · 홀몸: '접두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중 '관형사형 접두사' 파트에서 '홀'은 '한 겹으로 된, 혼자인'이란 뜻의 접두사다. 따라서 접두사 '홀'이 붙은 파생어 '홀몸'은 '아이를 배지 않은 몸'이라는 뜻으로서 '홀몸'으로 적는 것이 맞다. 다만, 접두사 '홀'이 붙은 '홀몸'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접두사 '홀'은 '짝이 없어 혼자인'이란 뜻으로서 파생어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밋밋하다: 한글 맞춤법 제13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따라서 '민밋하다'가 아닌, '밋밋하다'로 쓰는 것이 맞다.

· 선율: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라, 한자음 '랴,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툐'은 '열, 율'로 적는다. 따라서 '선률'이 아닌, '선율'로 적는 것이 맞다.

문 11.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보기>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접접지
- ② 혼타
- ③ 익숙치
- ④ 정결타

★ 정답: ③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준말]

★ 정답 해설:

‘익숙하지 않다’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익숙찮다, 익숙지’가 옳은 표기이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ㄱ’이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간편하게             | 간편케  | 다정하다  | 다정타  |
|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 정결하다  | 정결타  |
| 가하다              | 가타   | 흔하다   | 흔타   |
| 무능하다             | 무능타  | 부지런하다 | 부지런타 |
| 아니하다             | 아니타  | 감탄하게  | 감탄케  |
| 가(可)하다<br>부(否)하다 | 가타부타 | 실망하게  | 실망케  |
| 달성하게             | 달성케  | 무심하지  | 무심치  |
| 당(當)하지           | 당지   | 분발하도록 | 분발토록 |
| 허송하지             | 허송지  | 실천하도록 | 실천토록 |
| 추진하도록            | 추진토록 | 결근하고자 | 결근코자 |
| 달성하고자            | 달성코자 | 청하건대  | 청컨대  |
| 사임하고자            | 사임코자 | 희상하건대 | 희상컨대 |

참고) 어간 끝소리가 ‘ㅎ’인 경우 표기 (우월한 문법·규정 p. 169)

붙임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      |      |      |       |
|------|------|------|-------|
| 않다   | 않고   | 않지   | 않든지   |
| 그렇다  | 그렇고  | 그렇지  | 그렇든지  |
| 아무렇다 | 아무렇고 | 아무렇지 | 아무렇든지 |
| 어떻다  | 어떻고  | 어떻지  | 어떻든지  |
| 이렇다  | 이렇고  | 이렇지  | 이렇든지  |
| 저렇다  | 저렇고  | 저렇지  | 저렇든지  |

붙임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본말      | 준말           | 본말      | 준말           |
|---------|--------------|---------|--------------|
| 거북하지    | 거북지          |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넉넉찮다) |
|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 못하지 않다  | 못지않다(못찮다)    |
| 생각하다 못해 | 생각다 못해       | 섬섬하지 않다 | 섬섬지 않다(섬섬찮다) |
|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깨끗찮다) | 익숙하지 않다 | 익숙지 않다(익숙찮다) |
| 갑갑하지 않다 | 갑갑지 않다(갑갑찮다) | 답답하지 않다 | 답답지 않다(답답찮다) |

★ 오답 해설:

① 섬섬지 → 섬섬하지

준말을 만들 때에는 안울림소리 다음에는 ‘하’를 아예 생략하기 때문에 ‘섬섬하지’를 줄일 때에는 ‘섬섬지’라고 하는 것이 옳다.

② 흔타 → 흔하다.

울림소리 다음에 오는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ㄱ’이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이 규정에 따라 ‘흔하-’ + ‘-다’에서 ‘하’ 앞의 ‘ㄴ’ 받침인 울림소리이므로 ‘하’의 ‘ㄱ’이 줄고 ‘ㅎ’과 ‘ㄴ’이 만나 거센소리 ‘타’가 된다. 그러므로 ‘흔타’는 옳은 표기이다.

④ 정결타 → 정결하다.

‘하’ 앞의 ‘ㄴ’ 받침인 울림소리이므로 ‘하’의 ‘ㄱ’이 줄고 ‘ㅎ’과 ‘ㄴ’이 만나 거센소리 ‘타’가 된다. 그러므로 ‘정결타’는 옳은 표기이다.

문 12.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 못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 (가)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 규칙성      ㉡ 역사성      ㉢ 창조성      ㉣ 사회성

- ① (가) - ㉡      ② (나) - ㉢  
 ③ (다) - ㉣      ④ (라) - ㉠

★ 정답: ④ [이론 문법 - 언어와 국어 - 언어의 특성]

참고) 언어의 특성(우월한 문법·규정, p. 12-15)

★ 정답 해설:

(라) 자의성(임의성): 언어마다 같은 뜻을 표현하는 말소리가 다르고, 같은 언어의 방언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예 집- [하우스](영어), [메종](프랑스어), [지아](중국어)

★ 오답 해설:

(가)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 성장, 사멸의 과정을 겪으면서, 소리나 의미, 형식적 문법 요소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예 말의 생성과 소멸: 컴퓨터, 비행기, 우주선 / 어사, 즈른(千)

소리 변화: 여름(15세기 발음 ‘녀름’), 열매(15세기 발음 ‘여름’)

의미 변천: 어엿쁘다(불쌍하다 ⇨ 예쁘다),

어리다(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문법의 변화: 중세에 없던 주격 조사 ‘가’가 근대에 생김.

(나)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예 원어로는 ‘셀룰러폰’이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핸드폰’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인다.

(다) 창조성: 인간은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으며, 긴 문장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예 상상의 산물: 유니콘, 악마, 천사 / 추상적 산물: 정의, 선

문 13. <보기>의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 챗죽에 갈겨 / ㉡ 마춤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 서리빨 칼날진 ㉢ 그루에서다

어테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 한발 ㉣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갯가보다

- 이육사, 「절정」 -

- ① ㉠: 채찍      ② ㉡: 마침내  
 ③ ㉢: 그 위      ④ ㉣: 재껴 디딜

★ 정답: ④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정답 해설:

이 시는 물러설 곳이 없는 '절정'의 한계 상황에 직면한 화자의 절망감과 현실 초극의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3연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공간조차 없다는 한탄이다. ㉠을 현대어로 옮길 때에는 '발끝이나 발뒤꿈치만으로 땅을 디디다.'는 뜻의 '제겨디딜'로 옮겨야 한다.

★ 작품 해설: 이육사, <절정> (우월한 독해 p. 281 적중)

- 해제: 이 시는 '기- 승- 전- 결'의 시상 전개를 통해 물러설 곳이 없는 '절정'의 한계 상황에 직면한 화자의 절망감과 현실 초극의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복방이라는 수평적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한다. 이어 2연에서 화자는 그 상황의 심각성을 수직적인 한계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3연에서는 이렇게 수평, 수직의 극한적 상황이 절대자에게 구원을 기구하지도 못할 만큼 철저한 극한 상황임을 부연한다. 이렇게 극한 상황을 제시한 화자는 4연에서 극한에 내몰려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 인식을 통해 희망이 있음을 재인식함으로써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남성적, 지사적
- 주제: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적 인식 / 절망적 현실의 초월 의지
- 특징: ① 기승전결의 한시적 구성 방식을 취함.  
② 주제를 역설적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③ 강렬한 상징어와 남성적 어조로 강인한 의지를 표출함.  
④ 현재형 시제로 긴박감을 더하고 대결 의식을 드러냄.

★ 오답 해설:

- ① 화자가 겪은 고통을 '매운 계절의 채찍(㉡)'으로 표현했다.
- ② 외부적 시련에 의해 극한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마침내(㉢) 복방으로 휩쓸려'라고 표현하였다.
- ③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선다고 표현함으로 생존의 극한 상황에 있음을 표현했다.

문 14.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옷 색깔이 아주 밝구나!
-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밝단다.
- ③ 내일 날이 밝은 대로 떠나겠다.
- ④ 그는 예의가 밝은 사람이다.

★ 정답: ③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 정답 해설:

'날이 밝다'의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이는 '날이 밝는다.'와 같이 현재 시제 선언어 어미 '-는-'을 쓰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우월한 문법·규정 p. 108)

- 관형사형 어미['-는/-(으)ㄴ-']를 모두 쓸 수 있으면 동사이고, '-(으)ㄴ-'만 쓸 수 있으면 형용사이다.
- 예) 먹는, 먹은, 먹던, 먹을(○) / 예쁜(×) 예쁜, 예쁘던, 예쁠(○)
- 현재 시제 선언어 어미['-는/-(으)ㄴ-']를 쓰면 동사이고, 기본형으로 현재를 표현하면 형용사이다.
- 예) 먹는다, 간다(○) / 예쁘는다, 예쁘다(×) 예쁘다(○)

- 명령형 어미['-어/-어라, -게, -오, -(으)시오, -어, -어요, -시어(세/서)요'], 청유형 어미['-자, -세, -(으)시다, -어, -어요']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먹어라, 먹자(○)

예쁘라(×) ⇨ 예뻐져라(○), 예쁘자(×) ⇨ 예뻐지자(○)

- 의도('~러')와 목적('~러')의 연결 어미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앉으려 한다, 먹으려 간다(○)

예쁘려 한다(×) ⇨ 예뻐지려 한다(○), 예쁘려 간다(×) ⇨ 예뻐지려 간다(○)

- 동작상의 보조 용언 '-고 있다', '-아/어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먹고 있다, 앉아 있다(○) / 예쁘고 있다, 예뻐 있다(×)

- 소망의 보조 용언 '-고 싶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먹고 싶다(○) / 예쁘고 싶다(×) ⇨ 예뻐지고 싶다(○)

★ 오답 해설:

- ①의 '밝다'는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 ②의 '밝다'는 '예측되는 미래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 ④의 '밝다'는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문 15.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보기>

지난여름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동포 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내가 ( ㉠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뻔뻔쩍쩍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 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

㉡

|   |       |                         |
|---|-------|-------------------------|
| ① | 원로    |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
| ② | 아쉬운   |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가          |
| ③ | 시인    | 잠깐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
| ④ | 입에 발린 |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

★ 정답: ①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 글 앞부분에 시 낭송회가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는 부탁은 '나'를 원로로 대우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나'는 원로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 글 뒷부분에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나'가 시를 낭송하겠다고 한 진짜 이유는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 작품 해설: 박완서, <그 여자네 집> (우월한 독해 p. 319 작중)

• 해제: 이 소설의 제목은 김용택 시인이 지은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의 제목과 동일하다. 서술자인 '나'가 김용택의 시를 읽으면서 떠올리게 된 이야기(=체험담)가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이고, 김용택의 시는 이 소설을 전개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득이와 곱단이'라는 두 남녀 주인공의 비극적인 사랑과 고달픈 삶의 과정은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소설은 '일제의 통치'와 '민족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시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만득이와 곱단이'라는 인물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 갈래: 순수소설, 액자소설
- 성격: 낭만적, 회고적, 서정적
- 주제: 민족의 수난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
- 특징: ① 액자식 구성을 이용하여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  
②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① 시 낭송회는 시인들 뿐 아니라 원로들도 참석하여 시를 낭송하는 자리다. 시를 낭송해 달라는 부탁은 '나'를 시인, 원로로 여겨주는 것으로, '나'에게 절대 아쉬운 소리가 아니다.

① '나'가 시를 낭송하겠다고 한 이유에는 복한 돕기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당시 '나'가 사로잡혀 있던 시가 있었던 영향이 크다. 이는 명분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에게 '실리'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인지는 알 수 없다.

③ ① '나'는 시 낭송회가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원로들도 참석하는 자리였으며 '나'도 시를 낭송해 달라고 부탁받았다. ①에 '시인'이 들어간다면, 앞서 시 낭송회에 원로들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서술할 필요가 없다.

① 복한 돕기는 '나'가 시를 낭송하겠다고 한 명분이다. ㉠이 있는 문장을 보면, ㉠이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명분으로, ㉠에 부적절하다.

④ ① 시 낭송회는 시인들뿐 아니라 원로들도 참석하여 시를 낭송하는 자리다. 시를 낭송해 달라는 부탁은 '나'를 시인, 원로로 여겨주는 것으로, '나'에게 '입에 발린 소리'로 볼 수 있다.

㉠ 글 전체에 시 낭송회에 원로들이 참석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원로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글 뒷부분으로 추론했을 때 '나'는 그 무렵 좋아하던 시가 있어 낭송회에 참석하려고 한 것으로, ㉠에 '원로들에 대한 예의'는 부적절하다.

문 16. <보기>의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보기>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땀을 들이면서 에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준다.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 갈진대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고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산은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며 즐기며 그 홍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그는 미인을 만났던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서 그 까닭을 발견했다. 그가 본 글은 이러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그 자태는 기록하지 않았다.'

- ① 틈                      ② 공간
- ③ 여지                  ④ 세상

★ 정답: ④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문맥 추론]

★ 정답 해설:

<보기>는 '완곡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완곡함'은 '불문곡직하는 직설'과 달리 '땀을 들이면서 에두르'고,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준다'. 그러나 '완곡함'은 '곡필'이 아니다.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완곡한 말은 '곱씹어볼' 말이며, '상상의 여지가 있는' 말이다. 글쓰이는 완곡함이 없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하였다.(살풍경하다: 보잘것없이 메마르고 스산하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은 세상 물정과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는 세상으로, '완곡함'이 없는 세상이다. 때문에 글쓰이는 옛것을 더듬으며 '완곡함'을 찾는다. 즉, 밑줄 친 '세상'은 '완곡함'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므로 '완곡함'의 의미와 연관되는 '틈, 공간, 여지'와는 문맥적 의미가 다르다.

★ 작품: 손철주, <꽃 피는 삶에 홀리다>

문 17.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제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기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 ①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 ③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다.
- ④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건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 정답: ③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보기>에서는 '사내'의 동숙 제안을 거절하는 '안'과 '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보기>에서 잠은 사내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의 요소로 작용하며 '나'가 '사내'의 제안을 무시하고도 '꿈도 안 꾸고 잘 잤다'는 것은 현대인들의 단절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잠이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동경을 환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 <서울, 1964년 겨울> 소설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기재하고, 동숙하자는 사내의 제안을 차갑게 거절하는 '안'과 '나'의 모습에서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주인공들이 '사내', '안'과 같이 표현되고 숙박계에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화투는 '사내', '나', '안'과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놀이라고보다는 사내의 제안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제안하는 놀이로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 작품 해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우월한 독해 p. 319 적중)

- 해제: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인간의 고독과 소외, 의사소통의 단절을 다루고 있다. 196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을 지닌 세 인물을 제시하여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강요하는 도시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성격: 감상적, 사실적, 묘사적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시간적 배경: 1964년 어느 겨울밤 / 공간적 배경: 서울
- 주제: 사회적 연대감과 동질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소외

문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보기>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탄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① 십년 ㄱ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미라.  
관산(關山)을 바라보며 세째로 묻저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니 세에 드리울고.
- ② 구곡(九曲)은 어드리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못쳐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히고 불췌엿다 흐드라.
- ③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쁘 차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침지 아니희웁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④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네.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 정답: ④ [독해(문학) - 교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이황의 시조 <도산십이곡> 중 제9곡으로 고인(古人)이 행하던 도리를 자신도 힘써 배우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학문수양의 당위성을 밝히는 것으로, 경전 공부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보기>와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이다.

★ 작품 해설: 이황, <도산십이곡> (우월한 독해 p. 197 적중)

- 해제: 퇴계 이황이 관직에서 물러나 도산 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때를 만나고 사물에 접하여 일어나는 감흥을 읊은 전6곡[言志]과 학문과 수양의 실재를 표현한 후6곡[言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강호 자연에서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제시된 세 수는 후6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벼슬살이로 인해 학문의 길을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주제: 학문 수양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

★ 오답 해설:

- ① 이순신의 시조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무인으로서의 결의가 잘 나타나 있는 시조이다. 경전 공부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보기>와는 거리가 멀다.
- ② 이이의 시조 <고산구곡가> 중 일부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경전 공부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보기>와는 거리가 멀다.
- ③ 맹사성의 시조 <강호사시가> 중 일부로 자연을 즐기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경전 공부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는 <보기>와는 거리가 멀다.

[각 선지 현대어 풀이]

10년이나 갈아온 칼이 칼집 속에서 울고 있구나.

관문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볼 뿐이니.

장부의 나라를 위한 큰 공훈을 어느 때나 청사(靑史)에 기록할까?

—이순신, 십년 가온 칼이—

아홉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한 해가 저무는구나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혔구나

세상 사람들은 와보지도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이이, 고산구곡가 中—

강호에 겨울이 탁지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둘러 입어 덧옷을 삼으니

듣는 이 몸이 이렇듯 추위를 모르고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맹사성, 강호사시가 中—

옛 어른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그들을 보지 못하네.

하지만 그들이 행하던 길은 지금도 가르침으로 남아 있네.

이렇듯 올바른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따르지 않고 어찌겠는가?

—이황, 도산십이곡 中—

문 1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中—

- ① 조국아/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남의 발톱에 주어본 적/없었나니(「조국」 中)
- ② 아사달과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 내며/맞절할지니(「껍데기는 가라」 中)
- ③ 꽃피는 반도는/남에서 북쪽 끝까지/완충지대(「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中)
- ④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붉은 발병 님 다커니/붉은 위독하다커니(「봄의 소식」 中)

★ 정답: ① [독해(문학) - 현대 문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정답 해설:

<보기>의 '쇠항아리'는 2연의 '먹구름'과 함께 사람들이 하늘이라 착각한 대상이자 하늘을 덮고 있는 부정적 대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자는 '쇠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를 찢으라고 한다. ①에 제시된 '발톱' 역시 조국의 심장을 노리는 외부의 위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를 가진 시어이다.

★ 오답 해설:

② '아사달과 아사녀'는 순수한 우리 민족을 의미하며, 이 둘이 만나는 장소인 중립의 '초례청'은 이념을 초월한 민족 화해의 장소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이다.

③ '완충지대'는 '꽃피는 반도'를 일컫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이다.

④ '봄'이 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봄'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해제: 이 시는 지금까지 맑은 하늘 아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바로잡자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물음은 결국 제대로 된 하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이 땅의 민족,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간다운 세상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냉철한 자각을 통해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늘'은 인간다운 삶이 펼쳐지는 곳, 자유와 평화가 있는 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갈래: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 성격: 참여적, 남성적, 격정적, 비판적
- 주제: 구속과 억압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
- 특징: 상징법, 대립적 시어, 직설적 표현으로 시상이 전개됨
- 구성:

|                      |                  |
|----------------------|------------------|
| 1~3연                 | 4~6연             |
| 암울했던 과거의 삶(과거)       | 현실 극복의 결의 추구(현재) |
| 7~8연                 | 9연               |
| 인고의 삶 - 현실 극복 의지(현재) | 밝은 미래의 희망(미래)    |

문 20.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물난리[물랄리]
-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신문[심문]
-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밟는다[밵:는다]
- ④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한여름[한너름]

★ 정답: ② [이론 문법 - 음운론 +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 정답 해설:

표준 발음법 제21항은 표준 발음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자음 동화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와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조음 위치의 동화는 모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성의 자음은 원래의 조음 위치대로 발음해야만 하므로 '신문'은 [신문]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참고) 표준 발음법 제21항(우월한 문법·규정 p. 75)

제21항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 : 기] ([강 : 기]×)<sup>1</sup>      옷감[온감] ([옥감]×)<sup>1</sup>  
 있고[인꼬] ([익꼬]×)<sup>1</sup>      꽃길[꼇길] ([꼭길]×)<sup>1</sup>  
 젓먹이[전머기] ([점머기]×)<sup>2</sup>      문법[문뵵] ([뵵뵵]×)<sup>2</sup>  
 꽃밭[꼇뵵] ([푼뵵]×)<sup>2</sup>

★ 오답 해설:

① '물난리'는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유음화가 일어나 [물랄리]로 발음한다.

③ 겹받침 ‘ㄹ’은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다만, ‘밟다’의 ‘밟-’은 다음 앞에서 [뵵]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밟는다’는 [밵:는다 ⇨ 뵵:는다]로 발음한다.

참고) 표준 발음법 제10항(우월한 문법·규정 p. 66)

제10항 겹받침 ‘ㄲ’, ‘ㄴ’, ‘ㄷ’, ‘ㄹ’,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으로 발음한다.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뵵 : ]으로 발음되고, ‘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뵵]으로 발음된다.

(1) 밟다[밵:따]      밟소[밵:쏘]      밟지[밵:찌]  
 밟는[밵:는 ⇨ 뵵:는]      밟게[밵:게]      밟고[밵:꼬]

④ 표준 발음법 제29항은 “합성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여름’은 접사 ‘한-’과 명사 ‘여름’이 결합한 파생어이며 앞말이 자음(ㄴ)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한너름]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참고) 표준 발음법 제29항(우월한 문법·규정 p. 80)

제29항 합성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 : 니불]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샷-일[상닐]      맨-일[맨닐]      꽃-잎[꼇넵]  
 내북-악[내 : 봉낙]      한-여름[한너름]      남존-여비[남존너비]